[#6]이번 목차에서는 코로나 19와 배달문화, 그리고 요식업계의 변화를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7]시도별 일평균 배달 건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보다 경기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8] 이번엔 시군구별 일 평균 배달건수와 인구대비 배달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 평균 배달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구로구였고, 강북구, 서초구등의 지역에서는 배달 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인구대비 배달건수를 보면, 구로, 금천, 영등포구는 순위에 변화가 없지만 도봉, 은평, 동작, 관악구는 순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9]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배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양시, 부천시의 경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배달 건수가 많으나, 코로나 이후 배달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평택, 동두천, 광주, 양주시는 코로나 전후로 배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0]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얼마나 배달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배달 증가 건수와 증가율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건수로만 봤을 때, 서울은 금천, 영등포. 관악, 노원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증가율로 보면 서대문, 노원, 관악, 동작, 강남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11] 경기도의 경우 평택, 양주, 광주, 동두천, 화성시는 증가 건수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데이터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여주시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 이번엔 업종별로 배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의 배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증가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심부름, 아시안/양식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배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13] 다음으로는 2020년도 상반기 요식업계의 창업/폐업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수도권지역의 창업건수는 업종별 배달 건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 지역별 창업 건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 지역별 추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5] 이번에는 업종별 폐업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던 배달전문업체, 심부름 업종의 경우, 폐업 건수 순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업종의 폐업 건수에는 배달 건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달 건수가 적었던 아시안/양식의 경우 폐업 건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업종들의 폐업에 배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요식업 폐업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56개 지역 모두에서 1건 이상의 폐업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2020년은 창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폐업 데이터가 존재했으므로, 업종별로 추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 경기도와 서울시는 시군구별로 인구적 특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인구적 특성과 배달 건수 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몇 개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달건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20대 인구 비율이 높았고, 1인 가구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배달건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40대에서 60대의 비율이 높았고, 2인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가구당 가구원수 비율이 증가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으나, 분식이나 족발,보쌈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탐구해보면 보완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창업의 경우 창업 건수가 존재하는 지역이 너무 적어, 제공된 데이터로 창업 추이를 분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달과 폐업의 경우 치킨, 한식, 분식과 같이 인기있는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반사 이익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배달건수가 많을수록 폐업을 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건수가 많은 지역이나 배달건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폐업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배달 건수 자체는 상위권이었던 것에 반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폐업 수가 상위권으로 나타났고, 배달 증가 건수, 증가율도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폐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조차도 배달 증가율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부).

[#32]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자체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배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로 데이터의 수집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창,폐업 데이터의 경우 요식업 데이터의 업종명이 배달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 업종에도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 저희가 직접 배달데이터 업종명에 맞춰 분류해야 했습니다.

창,폐업 데이터 모두 데이터가 상당히 부실한 지역이나 업종이 존재했고, 데이터 수집기간이 단 6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요식업계 전반의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한계점은 이러한 데이터의 자체에서 비롯됐습니다. 배달데이터의 경우 몇몇 지역의 데이터가 너무 적어 그래프 상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창,폐업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창,폐업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특정일에 한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월별로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창/페업 데이터의 경우, 업종명을 저희가 직접 다시 재분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류하기 모호한 업종이 있었고, 이런 경우 단일한 상위 분류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폐업 분석에서 ‘한식’과 같은 업종은 그 데이터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크게 나타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문화 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